



글 박영숙 70대 으뜸지기

새로운 10년의 문턱에서

어떤 이는 '벌써 10주년이 되었어요?' 하는데 나는 20주년으로 착각한다. 까닭은 여성환경연대가 그동안 일궈 낸 성과가 일감을 보면 알차고 울곧으며 연대의 폭과 민초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랑스럽고 희망을 예단할 수 있어 창립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10년 전 어떤 연구소 사무실 한 구석에서 책상 하나와 컴퓨터 한 대로 시작한 연대활동이 오늘의 여성환경연대로 우뚝 서게 한 것은 무엇보다도 함께한 남달랐던 사람들과 그들의 갈망과 열정 그리고 능력과 헌신에서 창출된 소산이라고 여겨서 감사한다.

10년간의 발자취를 나열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여성환경연대가 활동가의 연대에서 대중운동 그리고 지역사회운동으로, 국내활동의 울타리를 넘어 아시아를 시작으로 국제연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환경운동의 성인지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특히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생명, 평등, 평화운동에 주력함으로써 여타 환경운동과 차별화된 성장을 해오고 있는 점이다.

지난 10년간은 여성환경연대를 포함한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정부로 이어지는 세 개의 정치지형을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에서 미미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반환경적인 정부정책과 대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내 힘겹게 보낸 세월이었다. 어려움 중에서도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도가 지형이 바뀌어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참여정부 당시 환경운동 사상 유례없이 <환경비상사국>을 선포했던 일이나 지난해의 100만의 촛불의 여망이 무참하게 외면당한 경우 등에서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오늘 사회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의 NGO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떠한가? 1980년대 이래 오늘의 민주사회를 견인해낸 공익단체들과 사회서비스활동체들이 예외 없이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바라는 지속가능한 환경과 더불어 사는 민주사

회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행정시스템은 정치와 시민사회가 소통하는 협치(Governance)이다. 문민정부시기에 제기되어 국민의정부에서 형식적이거나 겨우 싹이 났던 협치 행정의 관행이 새 정부에서 완전히 말살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접촉점이 사라졌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위기와 생태위기를 분명 불러올 것이다.

현 정부는 각 행정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에 예전의 30%의 시민참여율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특정 시민사회참여자를 배제하는 것을 필두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의 시민사회 후원내역을 뒷조사까지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서는 종전의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공익부문 지원 사업을 국정홍보형 사업지원으로 대폭 물갈이하며 촛불시위 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국민의 세금을 편 가르기 식으로 사용하여 존재 본연의 기능을 다하려는 시민사회 운동의 고사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사회는 외적인 압박이 더해질수록 내적인 결속력과 정신력이 강해지며 '때'가 차면 그 폭발력도 예측하기 어려운 존재들이다. 오늘의 시민사회는 이 고비를 잘 넘길 뿐만 아니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어떤 활동가가 말하기를 '우리는 현 정부 집권동안 자기 경계와 성찰을 통해 대안세력으로서 준비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하였다. 귀 막은 권위주의 치하에서는 내실을 다지며 때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여성환경연대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담지하고 있는 강점과 보강해야 할 약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려서 강점은 더욱 살리고 약점은 특단의 대처로 해결해내면서 이번 기회에 여성환경연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나 가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행위의 창조성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한 사회학자도 있다.

나는 여성환경연대의 최대의 강점을 각 지역사회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는 풀뿌리조직들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있어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어차피 귀머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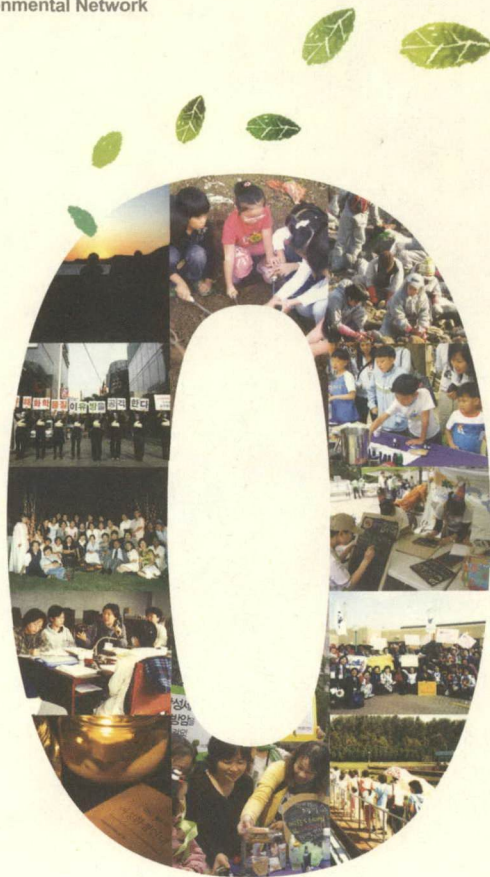
의 귀를 열기 위한 노력이 현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며 역량낭비임을 깨달은 처지에 우리가 주력해야 할 부분은 선 자리에서 실천을 통해 환경보호를 하며 이웃에 같은 뜻으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의 연대를 보살피는 일이다. 이들은 누가 뭐라 하든 외부환경이 어떻게 악화되고 있든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우리는 힘을 얻는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은 활동 전개에 절대 필요한 자원마련의 문제이다. 쉬웠던 적은 없지만 변화된 상황은 우리의 존립을 위협할 지경이다. 사회변화를 위한 공익활동과 정부의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서비스 활동에 대해 정부는 육성정책이 아니라 국제일변도의 정책으로 후진국을 자처해오고 있는 지금까지의 관례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자원마련방안의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일찍이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경영학은 원래 NGO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경영하면 기업을 연상하던 생각에서 벗어나 여성환경연대도 경영마인드를 활용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던 사회적 서비스에 대가가 따르게 해서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기업형태를 말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미 가난한 이웃나라에게 원조 대신 무역으로 착취를 줄이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공정무역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벤처에 주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여성환경연대가 무에서 유를 건인해내는 무한한 창의성과 추진력을 겸비한 지도력을 담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를 기회로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이끌어내는데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낼 것을 기대한다.

뜻이 있는 자와 꿈을 꾸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신념을 가지고 또 하나의 10년을 내딛은 여성환경연대에 하늘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통권 39호 10주년 기념 특집호

기획특집 새로운 10년의 문턱에서
 여성환경연대를 만든 사람들
 화장품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처하는 자세
 연재기획 여성이 주도하는 공정무역, 무엇이 다른가?

여성환경연대
창립 10주년
후원잔치

초여름 밤의 후원잔치

그녀들, 다시 함께 모이다

여는 사람들 ▼ (사)여성환경연대

여는 날 2009년 6월 12일(금) 늦은 6시 30분

잔치마당 북촌 은덕문화원

문의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 자연의 맛, 마음이 담긴 소박한 밥상
- 당찬 그녀, 가수 백지영의 울림
- 그녀들의 아름다운 10년, 'Slow is Beautiful'
- 자매들의 몸짓과 울림



10주년의 함께 해온 여성환경연대 자매들의 잔치 마당입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주소 (110-76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8호

전화 02.722.7944 팩스 02.723.7215

메일 kwen@ecofem.or.kr 홈페이지 www.ecofem.or.kr

으뜸지기 박영숙, 이상화, 남미정, 심현정, 김수진

사무처장 이보은

사무처 강희영, 고정금숙, 권예주, 박진형, 서미원, 이미애,

이안소영, 이자희, 이지혜, 홍영숙



서울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주소 (131-221) 서울시 중랑구 상봉1동 27-3호 501호

전화 02.493.7944 홈페이지 cafe.naver.com/ecomaul

회장 신경옥 사무국장 장이정수



대구여성환경연대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1005-4 녹색살림 3층

전화 053.982.5459 홈페이지 www.dgecofem.or.kr

상임대표 심현정 사무국 김민정, 안혜경



Contents

- | | |
|--|-----------------------------------|
| 04 기획특집 I 새로운 10년의 문턱에서 | 21 풀뿌리의 힘 초록상상 · 대구여성환경연대 |
| 06 기획특집 II 여성환경연대를 만든 사람들 | 26 즐거운 만남 좌충우돌
여성환경연대 활동가의 하루! |
| 12 연재기획 여성이 주도하는 공정무역, 무엇이 다른가? | 28 활동스케치 |
| 16 기획특집 III 화장품 속 유해화학물질에 대처하는
여성환경연대의 자세 | 31 문화공감 이 책, 이 영화 |
| 19 2009년 사업 소개 | 32 함께 해요 |
| 20 피어선 808호 이야기 | 34 힘을 주는 참여_회원 / 회비현황 |

39호 10주년 기념 특집호 **여성이 새로 짠 세상**

발행일 2009년 6월 1일 발행처 (사)여성환경연대 발행인 박영숙, 이상화, 남미정, 심현정, 김수진
 편집인 이보은, 이자희 디자인 일탈기획 · 임정아 02-2275-8447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피어선빌딩 808호
 전화 02-722-7944 팩스 02-723-7215 이메일 kwen@ecofem.or.kr www.ecofem.or.kr